

# 본질로 돌아가다, 살로네 델 모빌레 2025

올해 살로네 델 모빌레의 주제는 인간을 위한 생각 Thoughts for Human. 2천 곳이 넘는 브랜드가 참여해 각각의 철학,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리빙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그중 대표 브랜드와 리빙 트렌드의 바로미터가 되는 시즌 아이템을 소개한다. 글 최지은 기자



1

2

이 시대의 타임리스 뷰티

## GALLOTTI & RADICE

유리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70년 넘게 크리스털 헤리티지를 쌓아온 **갈로티&라디체** (인피니 02-3447-6000). 유리에서 출발한 물성과 피니싱에 대한 탐구는 금속, 원목, 텍스타일 등으로 확장되며 토털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는 품질과 우아함, 진정성이 어우러진 타임리스 뷰티를 향한 브랜드의 디자인 언어가 인상적으로 구현됐다. 전시는 형태와 텍스처, 색감을 시각적 내러티브로 엮어 감각을 자극하는 유기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컬렉션 구성은 장인 정신과 물성은 물론, 내구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물이다. 대표적으로 재활용 알루미늄을 소재로 사용한 아크Arch 커피 테이블과 환경친화적인 면 린터 소재로 재탄생한 스튜디오 페페의 플레이아디Pleadi 벽 마감재는 이러한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유리는 여전히 핵심 소재로 천연석, 금속, 목재, 텍스타일과의 조화 속에서 깊이 있는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중성적 컬러 팔레트에 메탈릭 디테일이 더해져 갈로티&라디체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 미학이 완성되었다.

1 유기적 디자인의 몰레콜라Molecola 테이블과 수공예로 만든 볼레 오리존탈레Bolle Orizzontale 조명등, 플레이아디 벽 마감재를 활용한 공간 연출.

2 유리 파편을 재사용해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 미라지Mirage 커피 테이블.

3 다채로운 텍스처와 오브제가 어우러진 설치 연출. 천연 석재로 만든 셀체Selce 콘솔은 감각적 조형미를 강조한다.

4 메탈과 유리를 결합한 트라토Tratto 조명등. 재료 간 균형감 있는 조화가 빛의 흐름을 따라 정제된 존재감을 드러낸다.



3



4